

광주시 'CES 2025' 5700만달러 수출 상담 성과

미국서 15곳 제품·기술 전시...광주공동관 6270명 방문 인비즈 등 8개사, 수출계약·투자협약 등 14건 업무 협약

광주지역 기업들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5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기업 15개사는 지난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 참가해 총 371건 57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인비즈, 이-솔테크, ㈜인디제이, ㈜오니온에이아이 등 8개사는 수출계약 1건, 투자협약을 포함한 1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또 ㈜고스트페이스 등 지역 6개 업체는 세계적 무대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광주의 우수한 기술력도 인정받았다. 시는 이같은 실적들이 지역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 활성화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간안보 분야(Human Security for All)에서 '다목적 모듈러 구조물'로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이-솔테크의 송중은 대표는 "올해 CES 참가를 위해 1년여간 열심히 준비했다"며 "CES 혁신상 수상과 더불어 해외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시회 종료 후에도 상당수 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제품공급, 업무협약 체결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CES 참가 3년째를 맞으면서 광주 기업의 참여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무대를 경험한 광주 기업의 실력과 노하우도 해마다 축적되고 있는 만큼 광주의 미래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유·청소년에게 매월 10만5000원을, 장애인에게는 매월 11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청소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5-18세가 대상이며, 장애인 소득에 관계없이 5-69세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에 신청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가맹 스포츠시설은 누리집 수강신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에 따른 스포츠 수혜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지역사회 통합의 중요한 제도라며 "가맹시설 확대와 체험강좌 개설을 통해 대상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 고향사랑기부금 3배 '경충'

지난해 3억6000만원...답례품 확대·맞춤형 홍보전략 효과

광주 고향사랑기부금 규모가 전년대비 3배 넘게 경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 확대와 맞춤형 홍보 전략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3억6000만원을 모금했다. 이는 전년도 1억1200만원보다 321% 증가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을 크게 늘리고, 연말정산 시기에 맞춘 이벤트 등 맞춤형 홍보 전략에 집중했다.
시는 지난해 14개에 불과했던 기존 답례품을 맞

집·관광·체험상품 등 62개로 대폭 늘렸으며, 그 결과 8월부터 4개월 간 운영된 신규 답례품이 총 판매량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국회, 광주의 날' 등 찾아가는 현장 홍보

로 광주 고향사랑기부금 인지도도 끌어올렸다. 또 11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춘 '광주 고향사랑의 퍼즐' 이벤트로 2주 동안 1억7000여만원을 모금하는 성과도 냈다.
박윤원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광주를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올해도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답례품과 의미있는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지산학연 협의회 신년인사회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지산학연 협의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관장, 입주기업 대표 등과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도, 특별교부세 70억 확보...나주 영산천 등 5곳 투입

전남도가 여름이 오기 전 나주 영산천 등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확보했다.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대형화하면서 재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재해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정비가 시급한 곳을 선정해 정부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비예산 지원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나주 영산천(19억원), 만봉천(19억원), 신광천(12억원), 보성 북내천(10억원), 담양 대덕천(10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확보한 예산을 1월 중 해당 시·군에

교부해 우기철 이전까지 시급한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 공정 관리와 지도·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국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우선 시급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안전시설 확충 등 재난 대비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5년 본예산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143억원(59개 지구)을 편성,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해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하세요

도, 2월 7일까지...3월 조기 지급

전남도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2월 7일까지 신청받아 민생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3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농·어·임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

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의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3월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2025년은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년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며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농·어·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적으로 지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22만여명에게 1310억원을 지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성금 10억 기탁

재해구호협회 통해 전달

광주시는 지난 14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을 돕기 위해 성금 1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한 이번 성금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전달되며, 사

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와 심리적·경제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들이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